

십년 이상 이공계 연구실을 운영하며 적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부 연구지원 기관의 관심사에 연구주제를 맞추다 보니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의 주축인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은 여전하다. 특히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지도할 경우 2년마다 얼굴이 바뀌다 보니 지도하는데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사실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연구를 직접 수행해 본 경험 이외에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느냐를 들 수 있다. 연구주제 선정의 경우, 지도학생도 대부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지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일차적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지도교수가 초기부터 관여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서론을 작성하게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론(Introduction)은 음악에서는 시작(Opening) 부분, 국회 등 모임에서는 선출된 새 멤버의 소개를 일컬으며, 연구논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배경과 목적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시간적, 공간적 순서에서 앞부분에 위치하며 핵심적 사항이 간략하게 언급된다.

서론 작성을 지도하며 느낀 점은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식이 부족하니 시간을 충분하게 투자하지 않게 되며, 잘 작성된 예를 바탕으로 적어도 형식이라도 맞게 서론을 작성하려는 시도도 못하게 된다. 논문에서의 서론은 독자에게 이전 연구와의 연관성(Context)과 논문의 관점(Perspective)을 알려주고 논문의 주제와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서론을 통해 독자는 연구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가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 비유하자면 짧은 시간 동안(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남녀의 경우 10초 정도) 이루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인상 판단에 해당된다.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는 서론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문의 서론을 다른 예에 적용하면 주요 프로젝트 제안서의 주제(Theme) 선정을 들 수 있다. 최근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에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논문 작성과 비유하자면 서론을 잘 작성한 것이 압도적인 지지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논문에서 해당 분야 연구자가 독자이듯이 올림픽 유치 제안서에서는 IOC 위원이 독자가 되며, 이전 올림픽 예(Context) 분석을 바탕으로 IOC 위원들의 공감을 사는 주제(이미 식상해진 분단국가의 세계평화 기여에서 올림픽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New Horizons')를 적절하게 선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연구논문 작성이 주업인 필자도 서론 작성에는 항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지만 잘 작성된 서론을 통해 적지 않는 연구비와 연구자의 노력이 투입된 연구 결과물이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아 사장되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연구자의 공감을 불러올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